



성보 1천점 “한눈에 본다”

직지사 본·말사 문화재 도록 2권 완간
전문가 동원 실측·자료수집... 3년 걸려

조계종 8교구 본사 직지사와 말사들이 간직한 1천여점의 성보문화재를 수록한 도록(직지사·본사편 말사편 2권이 완간됐다).

이 도록은 직지사와 말사들의 현재 모습과 성보 문화재 그리고 사적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이 책은 본 말사의 현황과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어 학계와 문화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은 이 도록의 발간과 관련해 지난 30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귀중한 성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도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님은 “직지사의 도록 발간으로 다른 본사와 말사에서도 성보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보존하는 계기가 될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간행된 직지사 본말사의 문화재도록은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각 사찰의 현재 모습을 원색 사진으로 실고 그 실측도면을 수록함으로써 사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작업 과정에서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성보 30여점을 발굴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문화재들은 보존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에 문화재 및 중요유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란 직지사측의 설명이다.

《직지사》본사편에는 6백여 컷의 컬러 사진과 함께 각 당우와 부조물, 탱화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또 말사편에는 4개시 5개군에 소재한 59개 말사의 건축과 회화, 부조물들이 사적과 함께 기록돼 있다. 말사편에는 8백 여컷의 화보가 실렸다. 본사편의 말미에는 직지사의 사적이 수록돼 있으며 배치도

와 소장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말사편의 말미에 수록된 직지사 본말사 소장 주요문화재 목록에 따르면 현재 직지사 본말사에는 선산 죽장사 오층석탑 등 2점의 국보와 직지사 석조암사여래좌상 등 보물 29점 도지정문화재 11점 도지정문화재지표 9점 민속자료 1점등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3년간에 걸쳐 준비된 도록 작업에는 석정스님과 범하스님(봉도사 박물관장) 장흥식교수(동국대)등 전문가와 사진작가 실측기사등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지사가 본말사의 문화재 1천여점을 모아 귀중한 《직지사》본말사편 2권이 완간됐다.

으로 알려졌다. 도록의 집필을 맡은 장흥식교수는 “이번 작업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 조사되었고 7축의 대형탱화를 정밀 조사, 그 가치를 밝힌 것들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성보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직지사》본말사편은 사찰 스스로가 성보문화재 관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 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연태 기자〉

연말 음악무대 풍성

연말을 맞아 한해를 마무리하는 불교음악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 연말 무대를 장식할 음악회는 자선공연에서 정기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풍성하다. 이들 음악회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로 불을 통한 지비나눔의 자리로 마련된다.

신작 찬불가 20곡 발표 94 음악공양의 밤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94 음악공양의 밤’이 12월 12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펼쳐진다.

‘음악공양의 밤’은 찬불가 제작 5개년 계획으로 치뤄지는 행사로 귀의, 참회, 속화, 발원, 공양, 열반의 의식에서 부릴 의식용 찬불가를 개발 발표한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테너 시명스님, 소프라노 김현숙씨, 베이스 김중진씨 등 3명의 독창과 조계사 보리수합창단의 중창, 6개팀의 합창단이 신작 찬불가 20곡을 소개한다.

95년도에 희망하게 될 ‘음악공양의 밤’은 91년부터 한해 20곡씩, 내년이면 100곡의 찬불가를 발표하는 대불사를 성취해 된다. 이 음악회는 찬불가 보급사업을 마련한다.

예매처는 불교방송국 6층 사업부, 705-5251

수익금 불우이웃 100명에 전달 찬불가의 밤

‘거룩한 만남을 위한 찬불가의 밤’은 중앙합창단 창단연주회를 통한 자선음악회로 12월 19일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에서 6시 30분에 열린다.

불교방송과 중앙합창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연은 상임 지휘자 박봉순씨의 지휘에 중앙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중앙합창단 창단이 공연한다.

‘거룩한 만남을 위한 찬불가의 밤’은 찬불가 발표를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리로 본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BBS 거룩한 만남’ 가족 100명에게 전액 전달된다.

입장권은 중앙합창단에서, 896-2341

소년가장과 나눔의 기쁨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이번 연말 음성공양 공연의 필두가 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회주·법정)’의 ‘어려운 이웃 나눔의 기쁨을...’은 지난 28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관려기사11면〉

이날 공연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음악회로 범정스님의 나눔의 기쁨에 대한 법문과 국악인 김영동, 작곡가이자 연주자 노영삼, 가수 김관석씨가 출연, 맑고 향기로운 삶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불우소년 위한 공양의 밤 불교열린음악회

지난 29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 ‘불교열린음악회’는 정률, 심진, 덕륜스님 등 음성포교 스님으로서 널리 알려진 스님들이 뜻을 모아 한 무대에서 불우소년소녀를 위한 음성공양의 밤으로 펼쳐졌다.

재소자에 따뜻한 마음 불교음악예술제

11월 30일 연희비극사회(회장 법성)는 「소년 자선불교음악예술제」를 기획, 재소자를 방문해 위로공연했다.

재소자 합창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한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묘심스님의 독창, 박소림씨의 승무동이 함께했다. 이날 공연은 자칫 사회의 이방인으로 소외될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법우로서 인연맺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필선 기자〉



◇성주사지 발굴 현장.

“성주사는 백제시대 사찰”

충남대, 오합사터 발굴성과

충남 보령군 성주면 성주사의 창건시기가 백제시대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성주사터를 발굴중인 충남대 박물관(관장 최근목)이 성주사지에서 백제 오합사(烏合寺)로 추정되는 사찰터를 발굴, 23일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성주사지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 문화재관리국이 정비, 복원키로 한 것으로 보물 제 19, 20, 47호인 5층석탑, 중앙3층석탑, 서삼층 석탑 등 중요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발굴은 통일신라시대(850년경)로만 여겨왔던 성주사 창건시기를 오합사를 발굴함으로써 창건시기가 백제시대(600년경)라고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귀면(鬼面瓦), 석제좌와 및 고려시대의 소조불상 등 중요유물도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룡사는 가야유적

관룡사(경남 창녕군 소재)는 신라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고대가야불교 유적이라는 점과 한국불교사에서 가야불교로서의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랫동안 창녕지역 불교문화 연구에 몰두해 온 향토사학자 김세호씨는 최근 창녕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학회지에서 ‘창녕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창녕지역은 불교문화제로 국보 1점, 보물 7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잔재가 산재돼 있는 곳.

이같이 한국불교사에 있어 창녕지역이 갖는 중요성에 불구 하고 그 동안 문헌이나 기록의 부족으로 인해 이 지역 불교문화의 정확한 역사적 고증은 소홀히 취급되어 온 실정이었다.

김세호씨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화랑산 소재 사찰 중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관룡사유기’에 주목하면서 관룡

사가 가야시대의 불교유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은하사 문화재 도난

비천상 등 조각 6점

김해시 삼방동 882 은하사(주지·대승)소장 도지정 문화재 제238호 비천상(수미단) 조각 6점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은하사 대웅전에 소장돼 있던 이 조각품들은 불상발탁대에 조각돼 있던 것으로 이 불상발탁대는 지난 92년, 93년 두 차례나 도난 당했던 적이 있다. 이번엔 6점의 비천상마저 도난당한으로써 불상발탁대의 비천상 모두를 도난당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이 사찰 해경 총무스님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에 아침기도 준비를 위해 대웅전에 들어서다 비천상 조각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20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日 범룡사 백제관음당 건립

세계문화유산 등록계기... 98년 완공

일본 범룡사에 백제관음상을 안치키 위한 백제관음당 건립 추진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범룡사가 세계 문화유산조약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백제관음당을 새로 건립해 부속되어 훼손일로에 있는 백제관음상을 소장키로 한 것.

미쓰다관장은 “이 백제관음당이 건립되면 백제관음상을 모시는 신(新)대보장전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옛 역사를 증명하는 범룡사의 새로운 명물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범룡사내 백제관음당 건설추진 사무국측은 앞으로 4년간 모금운동을 계속해 98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 불자들로부터의 모금 또한 희망하고 있다.

바람소리의 형상화

하수경교수 개인전

하수경교수의 여섯번째 개인전이 6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이콘에서 열린다.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전시의 주제는 ‘바람소리’다. 하수경은 이번 개인전에서 한지에 흙, 먹, 물감등 혼합재료로 형상화한 인간의 삶을 불교적 이해의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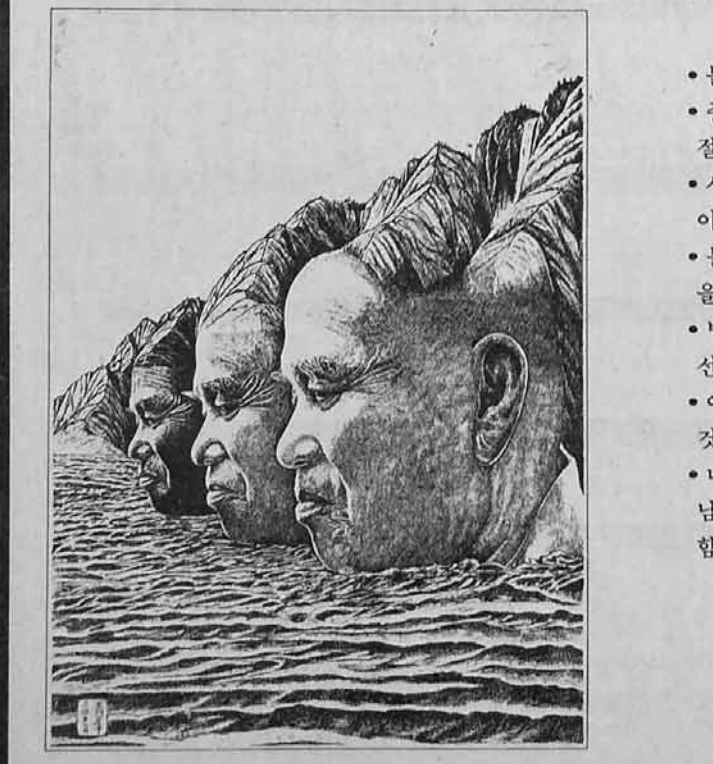
기초 연구반 중강

차생활 교육원

한국차생활교육원(원장·강승희)은 금년도 2학기 종강식을 지난 3일 오후 3시에 가졌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기초반 제16기생과 연구반 제15기생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원은 내년도 1학기 개강식을 3월 4일 오후 3시에 갖는다. 〈문의:732-9027〉

성철스님 무진 법문 선화 소장 안내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있다.
-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방편일뿐 현실이대도가 절대요 극락이다.
- 사찰은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 불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법당에 계신 부처님 보다 먼저 불우한 이웃돕기에 실천하는 것이 참불공임을 알아라.
-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 내가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자기성찰의 이익을 성취하게 함이니라.

성철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하며 큰스님의 선사상을 널리 고양하고자 법어종 산은 산물은 물을 한국선화의 대가이신 청봉스님의 역작 삼법인 선화를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성철스님 유훈대로 선화보급의 이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점 1구좌 작품대금: ₩60,000
- 온라인 계좌
- ☎ 법: 053-02-064700 (북지회 권오성)
- 국민은행: 006-21-0567-711 (북지회 권오성)
- 우체국: 010579-0052194 (북지회 권오성)

※ 입금후 연락주시면 작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급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전화: (02) 735-5293, 732-6096
FAX: (02) 208-7975

작품규격: 가로 365×세로 543(%)